
새시대 교수법 152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畫中之餅

TP or not TP 2. 적절한 분량

"이 도표는 학생들이 꼭 봐야 되."

"하! 이런 기똥찬 차트가 있었구나..."

"저 그림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깜짝 놀랄걸."

"이 수식에다 저 도표를 동시에 보여주면 이해가 쉽게 되겠지."

"요건 또 뭐야? 으하하.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이 재밌어 하겠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에라, 둘 다 보여주자."

TP를 준비할 적에 머리 속에 흔히 떠오르는 혼잣말입니다. TP를 준비하다보면 이 내용 저 내용 온갖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커피아웃 사려고 옷가게 들렀을 적에 이 옷 저 옷 몽땅 다 사주고 싶은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강의 준비를 이토록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의 마음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저것 다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급 복사기와 스캐너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요즘엔 TP를 준비하기가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강의에 필요하고 적절한 오만가지 자료가 교수님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멋진 그림, 도표, 차트, 수식 등 눈에 다양한 자료를 맘대로 편집하거나 화려한 칼라 그대로 TP로 옮겨 올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다가 맘을 못 정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TP가 많이 준비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 완전무장한 군인의 기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TP 사용을 선호하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TP를 남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많은 TP가 등장하면 학생들이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서너 TP에는 주의집중을 합니다. 뭔가 눈으로 보는 수업을 대하게 될 때 일단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강의에서는 주로 교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면 TP로 진행되는 수업을 대환영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내용이 담긴 TP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학생들의 두뇌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TP가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 학생들의 눈이 내용을 보고있는 듯하지만 두뇌는 이미 눈과 "결별"한 상태입니다.

TP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TP를 왜 준비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각 TP에는 뚜렷한 학습 목표가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잔소리 코너>

"... 요즈음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것 보면 자기 지식 자랑하듯 만 하여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강의란 무릇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00대학의 이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보내신 이메일에 적힌 구절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TP가 과시용이라고 다른 교수님께서 느끼셨다면 학생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TP가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TP 준비에 드린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드려서 TP를 준비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에 따라 TP의 효과는 무척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TP가 과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가?" 항상 염두에 둘만한 질문입니다.

<<편집 코너>>

새 구독자님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은 대학의 요청으로 교수님 진원이 "새시대 교수법"을 구독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학 전 교원이 구독하는 케이스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글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